

시민들 지혜 모아 도시 생활물가 잡는다

전주시, 9월 6일까지 실생활 속 다양한 공유경제 대한 시민아이디어 모집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물품을 함께 나눠 쓰며 생활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9일 전주시에 따르면 먹거리와 의류, 교통통신 등을 공유해 생활비를 줄여 온 시민들의 실생활 속 다양한 공유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반값 생활비 도시(공반생활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공유경제 사례 및 아이디어를 모으고, 관련 전문가와 공유사업가,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유축진위원회와 II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먼저,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9월 6일까지 공유경제를 통해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유경제에 관심 있거나, 과거 먹거리와 입을 거리, 교통통신, 주차장, 공동육아, 주거공간 등을 공유하는 등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10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우수아이디어 상 2팀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상상자재는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의 은누리상품권이 지급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고교생 공학체험 캠프 '호응'

융합 신기술 지식 기반 자율주행시스템 프로젝트 완성

전기공학 분야에 재능 있는 고교생을 발굴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전북대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가 학기 중 교육에 이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공학체험 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북대 공대에서 지난 5월 12시간의 토요교육으로 진행된 '스마트 팜 자율주행로봇 교육'을 이수한 고교생 60명을 대상으로 체험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에서는 학기 중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과 융합신기술 분야 지식을 기반으로 스



“평화지구주민 생존권 보장을”

익산평화지구이주대책위원회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공정한 토지수용과 익산시의 일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으로 기대된다.

반값 생활비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누구나 전주시 홈페이지의 공모를 참고해 신청서와 제안설명을 이메일(jcc@jcc.or.kr)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063-281-83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관련 사업가와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전주시 공유축진위원회와 II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 전주만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6기 출범 위해 나눔의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 행복을 키우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포럼 개최, 태평공구도서관 개소 등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

업들을 전개해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와 옷, 반값 책 등의 물건들은 한 사람이 소유했을 때보다,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며 그 가치를 나눌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며 “나눔과 상생의 공유경제 활성화로 반값 생활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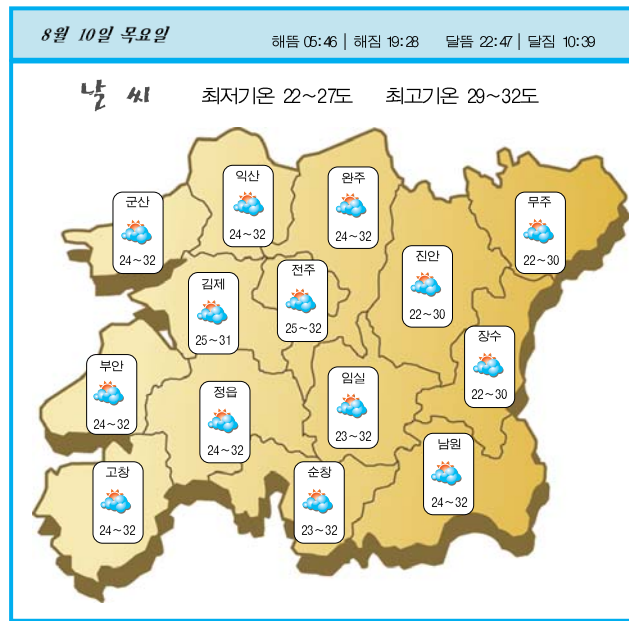
전주시, 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발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발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현지를 방문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9월 29일 결정 공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1달여 간의 이의신청 기간과 가격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선행학습 금지 학원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학원광고 가이드라인을 시설학원에 안내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요사항 표시의무 ▲하위 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부당비교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광고를 할 때 교습비, 등록·신고번호, 교육과정, 교습과목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하며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

의 실적을 거뒀기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허위 수상경력 등도 광고해선 안 된다.

이와함께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해서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진학 실적의 외벽 광고와 전단 광고를 자체로 하는 한편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를 자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학부모기자단과 함께 '아나바다 나눔장터'

교육주체 중심 학부모 참여 활성화 도모

전주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전주학부모기자단은 지난 8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가졌다.

이번 바자회는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 상반기 학부모교육, 전주학부모기자단 정례회 운영 학부모교육 특강,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를 밑바탕으로 컨텐츠를 준비했다.

행사는 나눔장터(음식류, 의류, 도서류, 완구류, 완제품 등), 체험마당(캐리커처, 테라리움, 전래놀이, 리본 만들기 등), POD CAST 등 다양한 프

로그래프로 교육주체 중심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나눔장터 수익금은 '전주 영아원' 원아의 파스한 겨울나기 준비를 위한 내복을 구매 지원한다.

전주학부모기자단 회장 신현숙은 “물품을 기증해준 모든 분들과 참여 봉사자 한분 한분, 어려운 발걸음으로 찾아주시어 많은 격려와 애정으로 다독겨준 학부모님들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교육을 방해하는 교육의 적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소은,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